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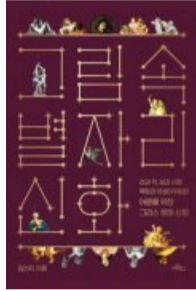
# 별자리와 그림으로 만나는 신화 속 에로티시즘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 그림 속 별자리 신화

김선지 지음



봄철 대표 별자리인 처녀자리 주인은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아다. 여인이 누워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별처녀'라 불리는 것은 그만큼 고결하다는 의미일 게다. 그리스 신들은 인간이 지닌 다양한 욕망을 지닌데 반해 그녀는 신다운 품위를 갖췄다. 한 손에는 칼을 쥐고, 다른 손에는 거울을 쥐고 눈을 가린 모습이다. 제우스와 법률의 여신 테미스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천성으로 정의와 불의를 판단했다. 로마신화에선 유스티티아(Justitia)로 불렸는데, 정의를 의미하는 단어 'Justice'가 여기서 파생됐다.

지금까지 별자리 신화는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별자리가 인간의 길흉화복, 나아가 사후세계까지 연결돼 있다는 믿음이 때문이었다.

천문학 시선으로 예술 작품을 조명하는 책 '그림 속 별자리 신화'는 한마디로 '그림 위에서 펼쳐지는 욕망과 에로티시즘의 파노라마'다. 저자인 김선지는 '미술사에서 사라진 여성 미술가들'로 제7회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리스 로마신화는 신들의 영웅담, 모험담, 연애담 외에도 인간의 감정과 욕망을 모티브로 한 원형을 담고 있다. 히로에라클레스가 투영된 인간 본성의 거울이 바로 그리스 로마신화다.

저자는 황도 12궁과 계절별 별자리 4개를 더해 모두 16개 별자리를 토대로 신과 영웅들 이야기를 풀어낸다. 별자리와 관련된 신화와 이를 모티브로 한 그림, 조각 이야기가 이채롭게 펼쳐진다.

앞서 언급한 아스트라이아는 정의의 상징으로 주로 법원 앞에 세워져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온다. 태초에 신과 인간이 어울려 살았지만 차츰 다툼이 일자, 신들은 모두 하늘로 가버렸다. 그러나 아스트라이아만이 타락한 인간 세상에 머물며 정의를 설파한다. 17세기 이탈리아 화가 살바토르 로사의 '아스트라이아, 결백과 순수의 여신'은 인간이 불의에 실망해 떠나려는 아스트라이아의 손을 잡으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았다.

여름철 별자리 헤라클레스자리의 주인 헤라클레스는 힘센 남성의 아이콘이다. 육체적으로 뛰어났지만 지혜와 미덕까지 겸비했다. 헤라클레스와 관련된 우화는 이렇다. 청년 시절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두 여인이 나타난다. 한 명은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하지만 선한 길을 가는 미덕을 제시하는 반면, 다른 한 명은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악덕의 길을 제시한다. 헤라클레스는 힘들지만 옳은 미덕을 택한다.

16세기 파올로 베로네세의 '미덕과 악의 알레고리'는 선택에 대한 상징을 묘사했다. 흰색 비단옷을 입은 이가 헤라클레스다. 그는 월계관을 쓴 미덕의 여인에게 몸을

둘러 안는 포즈를 취한다. 반대편 빨강과 파란색 드레스를 입은 여인은 한손에 나태와 유희의 카드를 쥐고 있다. 바로 뒤 스펀크스 앞에는 칼이 세워져 있어 쾌락의 끝을 암시한다.

사랑에 배신당한 마녀 메데이아 이야기는 아르고자리 별자리와 관련이 있다. 오랜 옛날 그리스왕국의 무능한 왕이 이복동생에게 왕위를 빼앗긴다.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왕은 자신의 아들 이아손을 현인에게 보내 무술을 연마하게 한다. 청년으로 성장한 이아손은 궁에 들어가 왕위를 주장하자, 이에 왕은 황금양털을 가져오면 왕위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한다. 이아손은 아르고 호를 타고 먼길을 떠나고, 폴키스의 왕의 딸인 메데이아 도움으로 황금양털을 손에 넣는다. 그러나 얼마 후 메데이아는 배신을 당한다. 이아손이 자식까지 낳은 메데이아를 버리고 다른 여인과 결혼한 것이다. 그녀는 자기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이아손에게 끔찍한 복수를 감행한다.

프레데릭 샌디스의 '메데이아'에는 그렇게 분노와 슬픔, 질투와 광기가 복잡하게 투영돼 있다. 사랑이 아닌 집착, 자기애가 낳은 파멸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책은 이렇듯 '별자리 신화'와 '그림'이 핵심 키워드다. 저자는 말한다. "신화를 터무니없이 꾸며낸 옛이야기로만 읽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영롱한 뜻과 의미를 감지해낸다면 힘겹고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혜와 조언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아날로그·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16세기 파올로 베로네세의 '미덕과 악의 알레고리'는 그리스신화 '헤라클레스의 선택'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아날로그 제공〉

## 광덕산 딱새 죽이기

김주영 지음



김주영 작가 하면 '객주'를 떠올린다. 그만큼 많은 독자들에게 각인이 됐던 대하소설이다. 19세기 후기 한말의 보부상을 모티브로 당대 사회를 입체적으로 그렸다.

선 굵은 이야기를 역동적으로 그려왔던 작가 김주영이 지난 2017년 출간한 '뚝박의 생' 이후 4년 만에 장편 '광덕산 딱새 죽이기'를 발간했다.

주인공 복길은 젊은 시절 고향을 떠나 서울로 나가 객지에서 산전수전 겪으며 처세를 익혀나간다. 제2금융권에 근무하며 미수금을 받아내는 일을 한다. 그러나 그는 일을 그만 둔 뒤로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고 노숙자가 돼 서울 거리를 헤맨다. 장례식장에서 끼니를 해결하며 연명하던 그는 주방일을 하던 황금자를 만나 그녀의 집에서 기거한다. 어느 날 그는 품속 귀신을 통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고향 옷깃마을로 다시 돌아온 복길은 서울에서 금융업에 종사했던 경험을 살려 마을 변영회 총무직을 맡는다. 복길의 사촌형 판대규는 한번도 마을을 떠난 적이 없는 인물이다. 그는 도회지 생활을 하다 돌아와 마을을 바꾸려 하는 사촌동생이 못마땅하다.

어느 날 복길은 마을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견학 일환으로 관서 문중 사람들에게 여행을 제안한다. 이를 거부하던 대규는 아내의 성화에 못이겨 결국 여행에 나서게 된다. 그리고 그 여행에서 뜻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서 마을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뀐다.

소설은 전통과 현대로 대조되는 두 인물의 삶을 통해 빠른 속도로 문명화되는 사회의 단면을 그려낸다. 도시와 시골마을을 오가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혼재된 시대의 모습을 만나게 된다.

〈문학동네·1만4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문명과 물질

스티븐 L. 사스 지음, 배상규 옮김



'물질은 인류의 문명을 어떻게 형성해 왔을까?' 인류가 발명하거나 발견한 물질은 저마다 이야기를 담고 있다. 다이아몬드, 금, 백금 등의 물질은 풍요와 신비를 상징하고 철이나 고무는 일상의 평범한 이야기와 연관돼 있다.

인류의 진화는 물질의 진보와 함께 진행돼왔다. 천연자원이 나 농산물만으로는 인류는 생존이 불가능했다. 물질을 가공하고 응용하는 기술이 있었기에 인류는 생존했고 문명을 이룩할 수 있었다.

문명과 물질의 상호관계에 주목한 역사 교양서 '문명과 물질'은 돌부터 실리콘까지 세상을 바꾼 물질의 역사를 조명한다. 코넬대 재료공학과 교수를 역임했던 스티븐 L. 사스 박사가 저자로, 그는 역사의 전환점을 가져온 물질에 초점을 맞춘다.

책에 소개되는 물질은 역사가 발전해온 순서대로 등장한다. 돌은 무기로 점토는 곡식과 액체유를 담은 용기로 사용됐으며 금과 은은 저장, 분할, 유통이 가능해 새로운 형태로 만들기 쉬웠다. 초석과 숯, 황의 혼합물인 화약은 무기로 쓰이면서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물품이 되었다.

저자에 따르면 혁신적인 물질의 발명은 인류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면서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는 '자본' 시스템을 불러왔다. 강철은 1800년대 고층건물 시대를 열었고,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이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새로운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는 에담 스미스의 '가장 동떨어져 있고 가장 이질적인 것들의 힘'을 하나로 결합시켜야 한다. 문명은 그런 능력에 의해 발전해왔다. 미래의 물질이 비뚤음을 새로운 문명이 기대되는 이유다.

〈위즈덤하우스·1만9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개와 함께한 10만 시간

엘리자베스 마셜 토머스 지음, 정영문 옮김



미국의 작가이자 인류학자인 엘리자베스 마셜 토머스는 우연히 친구가 맡긴 미사라는 이름의 시베리안 허스키를 돌보게 되면서 개들에 대한 관찰을 시작한다. '개들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할까'라는 궁금증에 사로잡혀 미사를 비롯해 함께 살던 다른 개들도 관찰하게 됐는데, 이러한 행동은 30년 넘게 이어졌다.

그가 수만시간 개들과 살면서 관찰한 후 깨닫게 된 것을 기록한 책 '개와 함께한 10만 시간'이 출간됐다.

책의 주인공은 저자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낸 열한마리 개들이다. 이중 다섯 마리는 작가의 집에서 태어났고, 열 마리는 자연적인 수명이 다할 때까지 함께 살았는데 이들은 인간보다 더 극적이고 파란만장한 드라마를 보여주었다.

미사가 집을 떠나고 몇 주 동안 창문 밖을 바라보며 미사를 기다리던 마리아, 자기 낳은 자식이 아님에도 강아지를 입양해 정성을 다해 보살피던 코키, 동료개 세상을 떠나자 구슬픈 소리로 밤새 울부짖던 비바와 이복수, 자신의 삶이 끝났다는 것을 느끼고 숲속으로 사라져버린 파티마까지...

각별한 애정을 쏟아 파스하게 그려낸 개들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그들 또한 생각과 감정을 지녔으며, 그들 나름의 언어가 있고, 그 언어로 엮여가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자는 '개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무리와 서열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 지나친 훈련과 규율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개성과 감정을 내보이는 삶을 개들이 원한다고 전한다.

〈해나무·1만48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의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텅텅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원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